

‘사랑의 매’는 더 이상 없습니다.

민법 제915조 징계권 폐지



징계권이란 무엇일까요?

민법 제915조 폐지

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징계권(구 민법 제915조)은

훈육이라는 명분으로 자녀에 대한 체벌을 정당화하여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었습니다.

사랑의 매라는 말도 있는데..

잘 되라고 하는 거니까 괜찮아.

이렇게 해야 잘 크지.

자꾸 떼를 써서..

원래 맞으면서 크는 거야.

**2021년 1월,
민법 제915조 징계권이
폐지되었습니다.**

부모라도 자녀를 체벌할 권리는 없습니다.

체벌 대신, 이제 부모와 자녀, 모두가 행복해지는 긍정 양육을 시작해 보세요.

긍정 양육이란?

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며
부모와 자녀 간 상호 소통과 이해,
신뢰를 바탕으로 한 양육 방법입니다.



긍정 양육 129원칙
기본 전제

**자녀는
존중받아야 할
독립된 인격체입니다.**



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.

자녀가 진정 원하고 좋아하는 것이
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펴보고,
생각과 의견을 존중해 주세요.

긍정 양육 129원칙
실천 원리 하나,

**부모 자신과 자녀의
이해에서부터
시작합니다.**



부모는 자녀의
기질과 성향, 발달 시간표들을

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긍정 양육 129원칙
실천 원리 두울,

**부모와 자녀가
서로에 대한 믿음을
가져야 합니다.**



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
'자신을 끝까지 믿어주고 지지해 주는 사람'이
꼭 필요합니다.

자녀를 항상 믿어주세요.

**징계권이 폐지 되었음을 기억하고,
긍정 양육을 함께 실천해 주세요.**

정부도 긍정 양육 문화 확산을
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
